

## 다시 맞이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학교밖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조진욱<sup>†</sup>

명소연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취약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이탈과 이후 삶의 과정을 학교밖 지원사업 조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있어 학교안과 밖에서 나타나는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삶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서 137개의 의미단위, 30개의 하위범주, 9개의 해석학적 범주가 형성되었으며, 핵심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첫째, 학교밖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에 어려움이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교밖 지원사업의 물적 인적 자원 조우를 통해 인고의 시간을 함께 버티고 제2의 태내기를 거치며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밖 세상에서 배움을 지속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가는 계속되는 성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취약가정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심리적 상황을 학교안에서부터 밖 그리고 사회적 자본인 학교밖 지원센터의 조우까지 구체적이고 연속적으로 살펴 본 것에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안과 밖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과 학교중단 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지원사업, 취약가정, 해석학적 근거이론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진욱,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상담교육 박사과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롯데 캐슬 106동 1701호

Tel: 010-3290-2509, E-mail: jj1009@hanmail.net

2015년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961만 명으로, 이 중 학업중단, 가출, 비행, 시설 입·퇴소 등으로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이 매년 7만 여 명씩 발생되고 있으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누적 인원은 40만 명에 이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2013년 조사된 학업중단 누적치 37만 여 명 중 약 77%에 해당하는 27만 여 명은 소재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한국청소년연구원, 2013). 최근 중단 연구로 진행된 자료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 중 정규학교로 복귀한 학생은 전체 인원의 5.2%에 불과하고, 학교 중단 상태인 94.8%의 학생 중 47% 청소년은 학업과 일 중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이 중 비행정도 6%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여기에 사회적지지 및 지원이 없으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1년 이내에 비행, 범죄와 같은 부적응 현상을 보이며 학교밖에서 상당기간 방황과 시행착오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금명자, 2008;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취약가정에서 가족해체와 방임 같은 가족 내 부정적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상담자들이 만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모습에 대한 분석 연구(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 등 기본적인 지지체계가 약하며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취약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철경, 김신영, 유성렬, 임지연(2013)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가족구조는 부모의 사망, 별거, 이혼, 재

혼, 가출 등으로 불안정한 경험을 한 경우가 44.9%, 가정불화, 가정폭력 등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는 50.6%, 부모의 실직, 사업 실패, 병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36.5%로 나타났다. 이런 취약가정의 열악한 자원과 불안정한 가족기능은 학업 흥미 저하,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갈등과 같은 학업 중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금명자, 2008;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업중단 이후에도 취약가정의 학교밖 청소년들의 상황은 악화되어 진로개발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 제공의 기회 철회(김지수, 2013)와 사회적 기회 상실로 이어지며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윤철경, 김신영, 유성렬, 임지연, 2013; 학교교육개발원,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도태, 성인기 직업 선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세대를 이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김범구, 조아미, 2013). 실제로 학교중단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제영, 2013).

이렇듯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 등 가족 및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상담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인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2007~2013년 사이 36,901명이었으며, 이 중 7,684명이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입 성과를 내었으며, 3000여명이 검정고시 합격 및 진학 등 학업으로 복귀하는 성과를 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현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좀 더 적극적 대처 방안으로 2014년 5월 28일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전국에 20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경숙(2015)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전문상담프로그램<sup>1)</sup>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과 학업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두에 피력한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회부적응으로 비행과 범죄에 연루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의미한 생활을 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학교 밖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도모하며 학업과 취업훈련 및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주금옥, 2002). 즉 학교밖 지원센터와 같은 사회자본이 환경이 취약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견인해 주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꾸준히 발생하는 학업중단경험 청소년들의 추정치와 학교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고는 학교밖 지원체계와 제도 등 사회자본 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며(이선희, 2015), 실질적인 적용과 개입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 안에서부터 학교 밖까지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이 걸음마 단계이며 학교밖 청소년들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밖 청소년 관련 연구들 또한 '학업중단

관련요인'과 '학업중단 위험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 대책'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밖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는 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희, 허철수, 2012).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징인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연구도 부족하여 대부분 학교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김범구, 조아미, 2013; 김민, 2001)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야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온 이후 삶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들이 미진하나마 제시되고 있다(김영희, 최보영, 2015; 이미원, 유현실, 2013). 관련 연구들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적응과정(김영희, 최보영, 2015; 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교밖 청소년의 적응요인 중 지역사회요인과 사회적지지,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의식 등이 연구되었다(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 이희정,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학교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주는 학교밖 지원사업 등 관련 프로그램 개입에 따른 효과와 변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 중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취약가정 청소년들의 경험을 어린시절부터 학교안과 학교밖까지 연속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적 자본인 학교밖 지원사업을 조우한 후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는지 과정의 흐름속에 담겨있는 현상학적 의미와 심리, 행동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연구의 방법론

1) 개인 및 집단상담, 멘토링, 산학연계, 인턴쉽, 취업연계, 기타 지원비 제공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질적인 검정고시 학원비 및 직업훈련 교육비, 의료비, 청소년지원비 등 제공되고 있다.

이자 근거이론의 한 부류인 Rennie(2006, 2007)가 제안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Glaser,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법은 특정한 사회현상 및 인간의 상호작용내에 존재하는 심리사회적 과정을 탐색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의 연속적 과정과 맥락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Morse, 2001; Schreiber & Stern, 2003). 하지만 근거이론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실증주의적 관점에 치우쳐 경직되었으며(Charmez, 2004; Rennie, 2007), 이론의 발견이 아닌 검증이 되는 모순이 발생했고, 특히 질적 분석의 특징인 해석과 맥락의 풍부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된다(김인숙, 2011; Charmaz, 2004; Glaser, 1992; Rennie, 2007; Walker & Myrick, 2006).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Rennie(2006)는 근거이론방법론에 해석학을 이식하여 표면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들어가 그 속에 내재되고 은폐된 의미를 찾아 드러내 주는(Rennie, 2000)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석학적 근거이론을 통해 미혼모(임혜영, 이혁구, 2014), 탈북청소년(조소연, 2016; 하춘광, 석희정, 2015), 이민자(양진운, 2012), 장애인(윤재영, 박정현, 전경철, 2015) 남성독거노인(석희정, 2014) 등의 특징적이고 다양한 계층과, 중독(이근무, 강준혁, 이혁구, 2015), 자살부검(최미경, 2015), 다문화 가정(김영숙, 이근무, 2011; )등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현상 및 심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심리적 특징과 이들이 겪는 현상과 변화, 내재된 의미를 깊이있게 탐색하기 위해

해석학이 주는 풍부함과, 더불어 근거이론이 주는 과정을 탐색하고 질차를 통해 얻어지는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징과 이후 삶의 과정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밖 나온지 3년 이상 되며 학교밖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1년 이상 되는 취약가정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장과 치유 과정을 상세하게 드러내어 학교안과 밖에서의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연구 윤리

본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근거이론과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Rennie가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구술을 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론적 표본 추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Rennie(2006)가 제안한 세평적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평적사례선택은 특정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통해 연구참여자 소개와 발굴을 의뢰하는 방법이다(Patton, 1990:169).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 지원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전문가 3명과 학교밖 지원사업과 청소년 상담을 10년 이상

표 1. 연구 참여자 인구. 사회학적 정보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						
구분	성별	연령	중단 시기	현재 상황	취약가정 유형	
참여자1	남	21세	17세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 재학중	저소득(기초생활 수급)	
참여자2	여	22세	17세	검정고시 합격 후 현재 아르바이트와 대학 입시 준비 병행	한부모, 저소득(기초생활 수급)	
참여자3	남	22세	18세	상업고로 복교, 패션학원에서 대학 진학 준비	한부모(부 알콜 중독으로 사망)	
참여자4	남	22세	17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며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저축	한부모(부 출소 후 사망)	
참여자5	여	21세	18세	4년제 대학 합격하였으며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 병행중	한부모(부 가정폭력으로 이혼)	
참여자6	여	22세	18세	사이버대학 재학중이며 4년제 대학 편입준비	한부모(부모와 거주하지 않음)	
참여자7	여	23세	17세	학교급식관련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중	장애인부모(부모의 심리적 취약으로 시설거주, 별도 분리)	
참여자8	남	23세	17세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하고 검정고시 합격, 촬영기사로 프리랜서 활동중.	한부모(부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참여자9	남	21세	17세	사이버대학 재학중이며 4년제 대학 편입준비	한부모(부의 가정폭력으로 이혼)	

진행해온 공동연구자를 통해 G시의 학교밖 지원사업 활용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을 연구 참여자로 추천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을 나온지 적어도 3년 이상이 되었으며, 학교밖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경험이 1년 이상 되는 취약가정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취약가정이란 가족과 기능 구조의 결함을 가지며, 저소득 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노인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김윤희, 조영태 2008).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와 연구 윤리준수를 위해 사전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하에 진행되었다. 연구 특성상 민감한 질문

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 소진 및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 도중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자가 철회의사를 밝힐 경우 그만둘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 탈락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자료수집

원자료(raw data)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 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회당 평균 70분

정도로 2회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사전동의를 통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으로 반구조화 되어 진행되었다. 관련 질문들은 현재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 학교중단의 계기와 학교와 가정 내에서의 성장 경험과 이후 삶, 학교밖지원사업과의 조우와 변화등이 동태적이고 풍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후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상호주관성과 연구 엄격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추가 면담을 통한 추가 자료 수집과, 자료 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 단계에서의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원칙인 포화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했다. 포화의 원칙이란 모든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의 새로운 의미단위, 하위범주, 해석학적 범주등이 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를 위해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분석하고 이를 공동연구자와 대조하였다. 이후 질적분석 전문가 1인 에게 감수를 받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분석방법 및 절차

원자료(raw data)는 Rennie(2000, 2006, 2007)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분석방법에서 야기되는 단점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 방법인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진 연구자가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및 절차에 따른 코딩 및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압도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다

(Layder, 1993; West, 2001).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근거이론이 지나치게 절차적 방법이 강조되며, 해석학적 경향을 경시하여 질적연구로서 갖추어야 할 해석의 풍부함이 상실되고, 맥락의 범위가 미시적이라 자료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인숙, 2011; Benolie, 1996; Charmez, 2004; Rennie, 2007). 이에 동의하는 연구자들(Kendall, 1999; Morse, 1994; Rennie, 1998)이 생겨났으며, Rennie(2006)는 근거이론의 해석적 풍부함과 원 자료의 맥락과 깊이를 살리기 위해, 근거 이론 안에 이미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해석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해석학을 방법적 도구로 차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원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근거이론 연구들에서 제기되는 해석의 풍부함이 상실되고 맥락과 의미가 결여되거나 과대화 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심리적 현상과 변화를 깊이있게 드러내고자 Rennie (2006: 2007)의 해석학적 근거이론절차를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범주화 단계로 Strauss & Corbin (1998)에서는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를 구성하는 개방코딩 단계이다. 즉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나 주제 등을 내포하고 있는 자료를 분절하는 과정이다(Lyvitt, Bultler, & Hill, 2006). 본 단계는 기존 근거이론과 차별되는 부분이며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장점이 체화된 부분이다. Strauss & Corbin(1998)은 이 단계에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진술 그대로의 기호화(in vivo code)를 강조한다면,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절차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를 통한 의미단위(meaning units)분석을 강조하였다. 즉 내

재된 연구 참여자의 체험을 해석하는 것으로 걸음으로 드러난 표면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들어가 그 속에 내재되고 은폐된 의미를 찾아 드러내 주는 것이다(Rennie, 2000). 이를 위해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과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의 방법을 통해 하위 범주에서 상위 범주로의 개념화하였다. 이때 개념화는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직관과 체화된(embodied) 경험을 통한 은유적이고 수사학적인 범주 구성 기술이 필요하다(Rennie, 2000: 484-493)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근거이론 방법에서 개념이나 범주 명명에 있어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진술 그대로의 기호(in vivo codes)와는 상반된 방법이며(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근거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해석학의 또 다른 차용이다. 본 연구에서도 범주화(categorizing)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텍스트(text)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 지평(horizon of understanding)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 주관적 반영(reflexivity)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체화되어 표현될 수 있도록 은유적이고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Rennie는 개별적 범주 구성이외에 핵심범주, 과정분석, 유형분석 순으로 이어지는 분석절차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임해영, 이혁구, 2014) 있으며 근거이론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핵심범주 구성과 과정분석은 근거이론의 절차를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다. 핵심범주구성단계는 근거이론의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해당되는 과정으로 다른 범주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88). 핵심범

주는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여 범주들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힘을 가지는 추상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도 분석된 범주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구술된 기록을 관통하고 아우르는 핵심적 발견을 추상화된 개념과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과정 분석 단계로 Glaser와 Strauss 모두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과정'은 근거이론의 핵심이며, 단계로 나타나지 않는 움직임까지 포함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88). 본 연구에서도 각 범주들의 연결을 순차적인 흐름으로 나타내고, 범주들의 연결에 미세하게 포착되는 의미들 까지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연구 엄격성 확보

질적연구의 분석과정과 절차에 연구 엄격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본 연구에서도 충족하고자 노력 하였다. 사실적 가치란 연구결과가 특정 현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의미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과정에서도 의미단위(meaning units)분석을 통해 문장과 맥락속에 내재된 의미까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에 일반화 될 수 있는 적합성, 연구가 유사한 참여자와 환경에서 반복되었을 때 결과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생활과 경험, 심

리적 특징들이 학교안에서부터 밖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이란 연구과정 및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석학적 근거 이론에서 연구자의 직관과 해석의 강조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연구의 엄격성에 관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Rennie, 2000: 490-493). 특히 연구자의 주관적 지평을 통해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이 체화되어 반영되는 부분에서 연구자의 왜곡을 검증하고 의미있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e)확보를 위해 분석과정에서 공동연구자와 합의된 결과를 얻을 때 까지 자료분석을 반복 대조하였으며 원 자료와도 비교 대조 하였다. 이후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내포된 의미를 해석한 부분과 연구자의 언어로 재해석된 부분들에 대해 상호 검증 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의도된 답변 유도에 대한 압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방법론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 결과를 질적분석 전문가이며 해석학적 근거이론으로 다수의 논문을 배출한 교수 1인에게 3회에 걸쳐 감수를 받았다.

## 결 과

### 자료의 범주화

본 연구에서 총 137개의 의미단위, 30개의 하위범주, 9개의 해석학적 범주가 분석되었으며,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 해석학적 범주 기술

본 연구의 해석학적 범주 기술에서는 분석된 의미단위, 하위범주, 해석학적 범주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상황들의 묘사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세계가 깊이 있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 안과 밖, 가정과 세상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한 심리적 상태와 반복되는 상황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는 가난으로 인해 부모님을 일터에 빼앗긴 채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등 돌봄이 부재한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더불어 가족내 갈등, 부모의 알코올 중독, 폭력, 잦은 부부갈등에 노출된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경험은 정서적 혼란으로 짐중되어 학교 안 밖의 낭자한 상흔으로 나타났다. 학교내에서는 또래관계 적응, 초기학습 어려움과 흥미 저하, 비행친구들과 비행하는 것으로 도피, 교사들과 또래에게도 학교안 루저, 열등생, 비행학생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냥 다 죽어버리고 싶었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나. 당시에 선생님들한테 감싸주거나 그런 사랑을 못받았죠. 나는 막 사라져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나를 가식으로 대하는 것 같고 (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냥 술만 먹으면 때리고 그리고 이러면서 또 우울증 같은 것도 심해지고, 우울하고, 괜히 막 눈물 나는 것 같고 서럽고. (참여자 3)



표 2. 자료 범주화 구성

의미단위	하위범주	해석학적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이 주는 박탈감</li> <li>• 가정 폭력과 가족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정한 동지</li> <li>• 존재감 없고 끼일 곳 없는 외로운 학교안과 밖</li> <li>• 사건사고로 얼룩지는 일상</li> </ul>	바뀌지 않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 무리들의 유혹과 폭력서클이 유일한 버팀목</li> <li>• 돌봄과 훈육이 안되어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무질서한 생활</li> <li>• 권위자들(교사, 부모 등)에 대한 불신이 사람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li> <li>• 학업과 성장에 집중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li> <li>• 일상의 부담과 불안을 피해 도망치고 회피하는 습관</li> <li>• 작심삼일, 자포자기 절망의 무너진 마음의 힘</li> </ul>	학교 안 밖의 낭자한 상흔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된 실패경험이 누적된 학교안 밖의 루저</li> <li>• 소속될 곳 없는 불안한 정체성</li> <li>• 철회되는 관계속에서의 고립감</li> <li>• 학교 안과 밖에서 희망없는 부적응자</li> <li>• 학벌도 돈도 자격증도 없는 빈털터리의 초라함</li> </ul>	일그러진 청춘의 자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내 부적응 및 학업 흥미저하를 견디며 지켜버린 몸과 마음</li> <li>• 학교내 비행 사건 사고로 분주하고 황폐화된 마음</li> <li>• 집안일(부모님의 이혼 등) 해결하고 난 뒤 탈진함</li> <li>• 이리저리 옮겨다닌 학교와 학원에 자포자기 심정</li> </ul>	소진된 몸과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없던 학교생활을 접었지만 할 것도 갈 곳도 없는 무력감</li> <li>• 학교밖을 나온 후 밤낮이 바뀌고 생활리듬이 깨어짐</li> <li>• 자유속 몇 개월간 빈둥빈둥 tv, 게임, 폭주와 술로 시간을 때움</li> <li>• 나태한 생활로 인해 학원 및 계획들은 물거품이 됨</li> </ul>	무너진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회와 후련함이 교차하는 싱숭생숭한 마음</li> <li>• 받아주지도 적응할 수도 없어 학교도 돌아 갈 수 없는 막막함</li> <li>• 스스로 걸어나왔지만 중퇴생을 받아주는 곳 없는 세상</li> <li>• 학교일정이 빠져나간 자유 시간들이 주는 공허함</li> <li>•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불안함</li> </ul>	학교밖에서의 표류	학교 상실의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름을 반납한 후 모호해진 정체성</li> <li>• 가족인 동생이 모르도록 자퇴사실을 숨김</li> <li>• 학교 친구들과도 소식을 끊고 학교근처는 가지 않음</li> <li>• 친척들에게 학교 중단 사실을 숨기기로 엄마와 약속함</li> <li>• 몇 달간을 집에서만 지내고 밖을 나가지 않음</li> </ul>	은닉되는 존재	

표 2. 자료 범주화 구성

(계속 1)

의미단위	하위범주	해석학적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 불안과 공허감을 대체하기 위해 단기 알바에 매달림</li> <li>• 학교밖의 막막함을 대체하기 위한 무의미한 학원등록과 중도포기</li> <li>• 혼자 시작해보는 방향성 없는 공부</li> <li>• 자포자기 심정으로 비행친구들과 본능적인 즐거움을 좇음</li> </ul>	불안과 두려움에 쫓긴 단편적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에서 느끼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시선</li> <li>• 군대에서 들은 학교밖 청소년은 양아치라는 편견</li> <li>• 졸업장을 요구하며 한계를 심어주는 세상</li> <li>• 세상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li> </ul>	비정한 세상의 벽	세상속 고단한 하루살이 인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내로 감내해야하는 허드레 일</li> <li>• 고객들의 험한 말과 행동도 감내해야하는 서러움</li> <li>• 고된 노동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억울함</li> <li>• 위장약을 달고 살 만큼 몸이 상하는 노동 강도</li> </ul>	노동으로 고된 몸과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으로 들리는 부모님과 주변의 걱정</li> <li>• 도리어 하소연을 늘어놓는 또래 친구</li> <li>• 학교안 형식적으로 받았던 숙려상담</li> <li>• 위로만 되는 실질적인 도움 없는 손길</li> <li>• 적성과 흥미를 무시한 학원 뺑뺑이</li> </ul>	속빈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려상담과 지인들을 통해 학교밖 센터를 소개 받음</li> <li>• 학교밖 친구를 통해 센터 지원금이 나오는 걸 알고 가게됨</li> <li>• 또래가 없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학교밖 지원센터를 가게됨</li> <li>• 세상에서 힘든 몸과 마음을 의탁하고 싶은 마음</li> <li>• 따뜻한 관심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픈 외로움</li> </ul>	지푸라기 잡는 심정	학교밖 히치하이킹 (Hitch hi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했던 어른들과는 다른 안정감있고 따뜻한 상담자의 관심</li> <li>• 같은 처지의 또래들의 모임</li> <li>• 지치지 않고 안내하고 연결해 주는 상담과 프로그램</li> <li>• 실속있는 정보제공과 실질적인 물질적 지원</li> <li>• 실패해도 눈높이와 능력에 맞추어 다시 진행되는 지원</li> </ul>	낮선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늦잠과 게으름이 몸에 익어 상담 지각과 취소를 반복</li> <li>• 반항적이고 모든게 싫었던 마음이 상담자에게로 향함</li> <li>• 상담자의 호의에 끝이 있을 듯한 불안감</li> <li>• 실패가 잦았던 과거와 기초가 부족하여 새로운 시도에 두려움</li> <li>• 묵묵히 기다려주는 상담자에 대한 짜증과 미안함의 교차</li> </ul>	이유있는 저항	삼고초려 인고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나게 해도 번번히 헤아려주는 보살 같은 상담자에 대한 연민</li> <li>•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숙연해지는 마음</li> <li>• 나의 선택과 계획을 존중해주는 상담자를 통해 느껴지는 자율감</li> <li>• 실패에 담겨있는 노력과 사정을 알아주는 상담에 해소되는 죄책감</li> <li>•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짐</li> <li>• 신뢰할 수 있는 내편이 생겨 외로움의 허기가 달래짐</li> </ul>	어르고 달래지는 마음	

표 2. 자료 범주화 구성

(계속 2)

의미단위	하위범주	해석학적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다려주는 상담자를 버팁목 삼고 규칙에 맞추는 연습</li> <li>• 비행친구와 비행 행동들을 단절하는 깡</li> <li>• 상담자가 내어준 숙제들을 통해 공부습관을 들이는 지루한 시간</li> <li>• 작은 시도에도 박수와 지지를 주는 상담자의 관심에 실패에 제도전</li> <li>• 어렵게 사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의지 세우기</li> </ul>	함께 버티는 시간	삼고초려 인고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곳과 할곳을 챙겨주는 학교를 대신해 주는 든든함</li> <li>• 같은 처지의 또래와 기수들의 모임을 통해 형성되는 결속감</li> <li>• 믿고 비빌언덕이 생긴 안정감</li> <li>• 힘들 때 찾아올 공간이 생김</li> <li>•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던 떠돌이에서 핵심 멤버로 느끼는 소속감</li> </ul>	안정된 등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초년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다지기</li> <li>• 학원비 및 생활 안정비용 제공 통한 경제적 걸림돌 제거</li> <li>• 세상의 첫발을 위해 제공되는 검정고시 지원</li> <li>•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센터의 다양한 기관 연계</li> <li>• 기초학습이 되어있지 않던 자신을 위해 제공된 눈높이 멘토</li> <li>• 단계에 맞게 제공되는 연속적이고 다양한 배움의 장</li> </ul>	공급되는 자양분	사회적 자궁이 만들어낸 제2의 태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에 호기심 발동</li> <li>• 막연한 취미가 실력으로 발휘되는 활동와 인턴프로그램</li> <li>• 흥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으로 목표가 생기며 살아나는 생애 의지</li> <li>• 허용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또래들과 함께 쌓아가는 추억</li> <li>• 다양한 전문가의 특강과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잃어버린 꿈의 상기</li> </ul>	펼쳐지는 꿈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를 위해 지금의 어려움과 과정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게됨</li> <li>• 보듬는 심정으로 자격증을 차곡차곡 쌓아감</li> <li>• 좌절을 견디며 맞보는 성공의 즐거움을 알게됨</li> <li>• 힘든 시간속에서 배우는 감사</li> </ul>	인내의 가치를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요해지는 마음과 넓어진 마음 공간</li> <li>• 안정감을 통해 살아나는 자각과 과거의 반성</li> <li>• 과거 반복된 사건 사고, 습관, 관계를 돌아봄</li> <li>• 심리극에서 보여지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자각함</li> </ul>	살아나는 성찰과 자각	인고의 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자와 멘토들의 삶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li> <li>• 삶으로 보답하고 싶은 상담자에 대한 애정</li> <li>• 센터의 공간이 소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li> <li>• 상담에서 누린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음</li> <li>• 새롭게 이해되는 가족과 타인</li> <li>• 같은 처지의 또래에게 향하는 연민과 우정</li> </ul>	새로운 애착관계	

표 2. 자료 범주화 구성

(계속 3)

의미단위	하위범주	해석학적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세가 삶의 정착을 위해 무릎꿇는 용기로 변화</li> <li>• 피하고 도망쳤던 어려움에 부딪혀보는 강</li> <li>•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감과 끝까지 해보고자 하는 책임감</li> <li>• 취업후 1개월 3개월 6개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나오는 수당으로 인해 직장의 일수와 규칙들을 견디는 성취감</li> </ul>	<p>발현되는 마음의 힘</p>	<p>인고의 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해진 사회경험으로 자신만의 학과와 진로를 선택함</li> <li>•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학교 진학을 선택함</li> <li>• 하고 싶은 일과 일치되는 과를 가보고 싶은 열정</li> <li>• 대학은 가고 싶을 때 도전해 보겠다는 여유</li> </ul>	<p>다시 쌓는 상아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장점을 발견함</li> <li>• 쌓아온 자격증과 센터내 성취감들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획득</li> <li>• 미래를 계획하고 스스로의 꿈을 설정하는 독립성</li> <li>• 집단과 상담 경험을 통해 역지사지의 타인에 대한 넓은 이해의 폭</li> <li>• 또래들 보다 빠른 직업선택과 실속 대학의 진학</li> <li>• 지원센터의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다독임</li> </ul>	<p>다시 발견되는 존재</p>	<p>전화위복 궤도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관리등 자기영역의 규칙이 생기기 시작함</li> <li>•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며 보호할 줄 알게됨</li> <li>• 오래된 가족내 문제를 상담을 통해 분리하기 시작</li> <li>• 저축을 통해 미래 학자금을 모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li> </ul>	<p>세워지는 삶의 경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직원으로 누리는 월급과 호칭이 주는 성취감</li> <li>• 장기적 목표를 위해 주경야독의 힘겨움을 스스로 선택</li> <li>• 안정된 삶을 위해 전문직을 꿈꿔보는 비전의 승격</li> <li>• 직장내에서 분위기를 맞추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li> <li>• 상담에서 생긴 힘을 직장내 가정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함</li> </ul>	<p>일궈가는 삶의 터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처세술</li> <li>•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유지하고 발전시킴</li> <li>• 사회적 관계에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함</li> <li>• 입장 바꿔 생각할 줄 아는 역지사지</li> </ul>	<p>성장하는 삶의 지혜</p>	<p>영글어 가는 청춘의 열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핵심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li> <li>• 새롭게 펼쳐지는 대학 교정의 낭만</li> <li>• 세상에서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즐기는 청춘의 시간</li> </ul>	<p>회복되는 청춘의 설레임</p>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되는 상처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인 일그러진 청춘의 자화상으로 자리잡았다. 학교 안에서 사건사고, 열등생으로 취급받던 경험은 스스로에게도 자포자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축감과 무력감으로 학교중퇴로 연결되었다. 세상으로 걸어 나왔을때도 열악한 환경과 지속되어온 가난은 연구 참여자들을 준비없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들게 하였으며,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인생의 패배자’, ‘쓰레기 같은 인생’의 루저로 자각되게 하였다.

말로만 듣던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4)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반응을 못하고 바로 도망쳐 버리는 그 때 그랬던 거 같아요. 조금만 버티면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도 그냥 저는 루저인거죠. 아쉬운 거(울음...) (참여자 7)

돈이 필요하니까.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쓰니까 계속 똑같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거죠. 알바 해가지고.. 반은 엄마 주고 제가 용돈 쓰고. 피자헛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의 초기 성장과정, 학교안과 밖까지 연결되어 바뀌지 않는 환경은 삶의 여기저기에 낭자한 상흔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푸르려야 하는 청춘의 모습을 일그러진 청춘의 자화상으로 자각하게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인생에서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굴레처럼 묘사되어 해석학적 유추를 통해 본

범주를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로 명명하였다.

### 학교 상실의 후유증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부적응, 비행, 또래관계의 어려움, 집안사정 등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학교밖으로 나오는 과정들 속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속에서 참고 견디던 어머니의 이혼을 도우며 심리적으로 탈진하였으며, 일부참여자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교도소로 가는 일이 생기며 가족의 위기상황 속에 극심한 정서적 혼란을 견디어야 했다. 일부 참여자는 학교내 비행과 사건사고로 학교를 옮겨 다니고, 일부 참여자는 학교 밖에서도 학교의 빈 공간을 학원으로 채우기 위해 옮겨다니며 소진된 몸과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혼관련 문제 엄마 처리하시는거 정신 없이 도와주다가, 학교 중단하고 거의 그냥 한 몇 달은 집에서만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누워있고 자고 일어나고, 그냥 생활패턴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아무 느낌도 없었고 그냥. (참여자 9)

학교를 나온 후 규칙과 제한이 없어진 일상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밤낮이 바뀌고 생활리듬이 깨어지고, 할 것이 없어 빈둥빈둥되거나 비행친구들과 함께 폭주와 술로 시간을 때우는 일상이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지속되었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학교를 다닐때는 깨닫지 못했던 학교와 함께 제공되었던 학생이라는 이름, 주변의 친구들, 학교일정에 맞추어

돌아가던 일상과 공간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일단 미래가 막막했어요..(학교에 있으면) 자동으로 대학교까지 연결되는데 학교를 나오고 나니 막막한 거예요. 뭘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가도 학교에서는 다 해주거든요. (참여자 5)

더불어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느낌으로 학교근처에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도 소식을 끊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집안 식구와 친척들에게 참여자의 학교 중퇴 소식을 감추고 심지어 집에 함께 사는 동생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숨기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존재는 표류하며 은닉되고 있었다. 본 해석학적 범주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온 후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소진, 일상의 무너짐, 학교밖에서의 표류, 은닉되는 존재의 특성들이 학교의 공간과 소속감, 학생이라는 이름을 상실한 후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분석되어 본 범주를 ‘학교 상실의 후유증’으로 명명하였다.

### 세상속 고단한 하루살이 인생

학생이라는 이름을 반납한 후 모호해진 정체성과 학교 중퇴라는 신분으로 소속될 곳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이 세상속에서 표류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무작정 학원을 등록해 보지만 흥미가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열악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과, 학교 밖에서의 막막함으로 인해 느끼는 압박감과 불안은 미래를 꿈꾸

고 계획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단기 알바에 매달리게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희망 없는 미래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단기간의 본능적인 즐거움을 쫓기도 하였다. 세상밖으로 나온 참여자들이 직면한 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었다. 알바를 구하기 위한 면접, 군대, 학원등에서 참여자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학교밖 청소년은 양아치’, ‘사연있는 중퇴자’, ‘문제아’였다.

처음에는 되게 스트레스 되고 그런 게 뒤였냐면은 학교 나왔냐고 신상정보랑 찍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저 검정고시 했다 하면 학교 자퇴한 거냐고 양아치였네 이려고 그 사람들은 장난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요 (참여자 8)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일은 주로 편의점, 미용실, 공장, 피자집, 햄버거집의 시급 노동자였으며, 주어진 일들은 제일 막내로 청소하기, 손님 시중들기, 뒷정리하기, 보조하기 등 이었다. 때로는 시급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고단한 노동과 손님들의 막무가내 횡포를 감내해야 되는 서러움에 몸과 마음은 겔포스를 매일 먹어야 할 만큼 상하고 쓰린 일상들이었다.

알바도 하고. 공장도 하고. 알바를 계속 한 건 19살부터 했어요.. 공장에 취업해서 1년 정도 조금 다니고. 2교대였는데 너무 힘들고 몸도 안 좋아가지고. 위가 너무 안 좋아서. 겔포스 같은 거를 달고 다녔거든

요. 그 때는 조금만 해도 속 쓰리고 그랬  
었거든요. (참여자 7)

제일 부당하게 느껴졌던 거는요. 제가  
요리하면서 청소할 수 없잖아요. 청소시키고.  
화장실. 얼음까지 채우고 그러다보면  
주문이 밀려있어요. 근데 저보고 주문 똑  
바로 받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며 준비 없이 세상  
밖으로 내몰았으며, 세상 속에서 주어진 것은  
고된 노동과 비정한 세상의 낙인에서 느끼는  
서러움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접하는 세상  
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해석학  
적으로 유추하여 본 범주를 ‘세상속 고단한  
하루살이 인생’으로 명명하였다.

#### 학교밖 히치하이킹(Hitch hiking)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에 속하기에는 아직 학교 중퇴의 신  
분이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소속의 떠  
돌이로 표류하였다. 이때 학교 안에서 부터  
숙려상담, 주변 지인들의 걱정어린 시선, 친척  
언니와 함께 학원을 다녀보는 등 학교 밖에서  
적응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된다. 그  
러나 현재 처한 현실에 필요한 정보, 물질적  
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상속에서는 고된 노동과 미래  
에 대한 불안감, 외로움으로 지쳐가고 있었고,  
지속되는 가난은 학업을 꿈꾸기에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학교밖 지원사업과의 조우  
가 일어났다. 참여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

였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비난의 시선으로 자  
신을 바라보던 선생님, 무능해보였던 아버지  
와는 달리 안정감 있는 상담자의 모습과 편견  
없이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상담자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낯선 조우가 일  
어나게 된다.

저도 처음에는 추천받고 안올려고 했어  
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상담선  
생님이랑 약속을 잡은날 핑크도 내고 그다  
음 날에도 약속을 다시 잡더라고요. 그 기  
간동안 생각을 했죠. 인터넷도 쳐보고 내  
가 이렇게 학교 그만두고 할 것도 없고 도  
움 받을 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  
보자 했죠. (참여자 5)

본 범주에서 보여지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  
습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무일푼으로 홀로  
길에 놓여져 있는 모습과 같았으며, 기대반  
두려움 반으로 손을 들고 동행할 것을 요청하  
고 학교밖 지원사업을 조우하는 모습이 마치  
히치하이킹(Hitch hiking)을 연상케 하여 본 범  
주를 ‘학교밖 히치하이킹’으로 명명하였다.

#### 삼고초려 인고의 시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학교밖 지원사업과  
의 낯선 조우가 일어났지만 여러번의 실패경  
험으로 무력해진 몸과 마음, 깨어진 일상의  
리듬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잠을 자다 지각하는 일이 허다  
하였다. 몇 번의 상담시간을 다시 잡아야 겨  
우 한 번의 상담이 시작되었다. 이때 끊임없

- 2) 히치하이킹이란 여행에서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  
해 다른사람의 차를 타를 세우고 타기위해 엄지  
손가락을 드는 행동을 일컫는다.

이 기다리고 시간을 조율하고 맞추기 위해 전화하는 상담자들의 어르고 달래는 애달픈 심정과 진심에 ‘한번해볼까’, ‘변할 수 있을까?’ 하고 참여자들의 발걸음이 지원센터로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과 밖에서 힘겨운 생활을 해왔던 연구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은 고스란히 상담자에게 투사되었으며,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담자를 신뢰하기 힘들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과 분노,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이 어려웠던 원 가정 속에서 느낀 불안이 안정된 공간과 대상에게서도 재현되는 이유 있는 저항이었다. 이때 상담자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태도와 잦은 실패의 반복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 속에 숨겨진 노력과 마음을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진심이 전달되어 서서히 마음이 열려지고 있었다.

왜냐면 우리가 버릇없이 하면 보통 화부터 내는데, 애가 사회 나가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는 것도 봤고. 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다 진심 어리게 말씀 해주시고. (참여자 5)

학교 같은 문제도 솔직히 많이 도움 받았죠..... 직접 나서서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관심 되게 많이 가져주시고, 매번 사람들이 싫어지고 선생님들이 싫어졌을 때 소장님만 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꿈을 찾아주셨고, (음) 저 삶에 있어서 소장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참여자 3)

함께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담자, 멘토,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을 헤아려 주는 상담자에 대한 연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여 나타났다. 여전히 실패와 좌절이 연속되는 일상 이였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노력과 사정을 알아주는 상담자로 인해 죄책감이 해소되고, 꾸준한 지지와 안정감 있는 상담자의 모습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내편이 생겨 외로움의 감정이 해소되고 있었다. 어르고 달래지는 마음이 교차하는 시간들 속에서 상담자를 버팀목 삼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시간을 지키는 규칙을 세우고, 상담자의 관심과 지지로 실패에 재도전 하며 삶의 무기력을 견디어 보는 시간들이 지속되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생활패턴이 자고 일어나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 생활패턴 바로 잡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참여자 8)

음 제일 노력했던거 정해진 시간 안에 오는거요. 만약에 10시 약속이면은 그전에 일어나서 씻고 그전에 일어나고 이런거 일찍 일어나는거 연습 하는 거죠. (참여자 7)

본 범주에서 보여 지는 상담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자를 의지하며 과거 삶의 무기력을 버티어 나가는 모습들이 마치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이는 모습으로 유추하여 본 범주를 ‘삼고초려 인고의 시간’으로 명명하였다.



### 사회적 자궁이 만들어 낸 제2의 태내기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뒷받침이 될 자본이 없는 상태였다. 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실을 넘기 위한 도전을 시도하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학력, 경력이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진로에 대한 정보와 관계망, 소속감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때 참여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과 세상의 다시 발을 내딛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학교밖 지원사업의 물질 지원 이었다. 검정고시 비용과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비용지불, 정보제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멘토와 눈높이 조력자들의 지원은 학교와 가정도 해줄 수 없는 재양육의 필수적인 자양분이 공급되는 안정된 동지와도 같았다.

도움이란게요. 사실 그때 금전적인게 제일 힘들었으니까.. 지원해주게 제일 고맙았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참여자 4)

지원해 준 거도 고맙고. 교육해 준 거도 고맙고.. 같은 처지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 준 것도 고맙고. 학원비랑 검정고시.. 하는 거요. 컴퓨터 학원..지금 한 7-8개 탄 거 같아요. (참여자 9)

또한 검정고시나 학원자격증 취득의 과정에서 학습습관이 들지 않아서 실패하는 참여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참여자들을 위해 기초부터 배울 수 있도록 멘토가 제공되었다. 그도 따라가지 못했던 참여자에게는 군부대에 들어가 장병들과 함께하며 환경을 바꾸는 경험과 동시에 경쟁

대상자들을 눈앞에서 보며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눈높이와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되는 지원은 참여자들 한명 한명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희망과 목표를 성취해나가며 기대가 쌓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학교 또래보다 더한 결속력으로 소속감을 더해주는 기수들이 함께 하였다. 또래와의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사연을 풀어놓고 같은 처지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위로하는 시간에서 참여자들은 학교 안 또래로부터도 느끼지 못했던 동병상련의 친밀감과 정을 느꼈다. 안정감을 느끼며 꾸준히 지속되는 도움은 학교를 대신해주는 소속감을 주었다.

꿈엔진(학교밖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학교 대신 나한테 맞는 학교를 간 느낌이에요. 학교에 체계적인 그런 게 맞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필요한 좋은 것들만 빼갔온 거 같은. 내가 좋아하는 거만 온. 단합해서 뭐하고. 음악도 하고. 캠프로 수학여행도 가고. (참여자 1)

자율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직접체험하고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턴프로그램은 잃어버린 꿈을 상기하는 기회를 주었고, 자신의 장점과 능력 목표를 설정하며 생의 의지를 제공해주었다. 학교 밖을 나온 후 소속될 곳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참여자들에게 학교밖 지원센터라는 안정된 동지와 함께 물질적 심리적 자양분이 동시에 공급되며 그 안에서 마음껏 꿈의 장을 펼치는 본 범주의 특징을 해석학적 유추를 통해 ‘사회적 자궁이 만들어 낸 제2의 태내기’로 명명하였다.

### 인고의 선물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밖 지원사업에서 상담자, 또래와 더불어 프로그램과 상담 참여 등 1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이들의 마음과 일상에 변화가 경험되었다. 상담자와 멘토들이 보여주는 오래참고 기다려준 시간들은 참여자들이 다시 도전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간을 함께 머물고 견디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인내 후 얻어지는 변화와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감사, 인내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또한 무겁고 혼란한 마음과 인생의 짐을 상담자에게 털어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과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관계, 예전의 행동,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심리극에서 만난 또래들의 사연과 울부짖음, 마음속 생각들을 조금의 거리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 자신을 비추어 보기도 하였다. 가족관계, 자신의 행동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타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의 역지사지의 통찰을 경험하게 되었다.

심리극 할 때 진짜 좋았어요. 심리극 전에는 애들이 막상 안 좋아 보이고 어울리긴 하는데 성격 왜이래 이럴때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웃으면서 얘기해도 철없는 것처럼 보여도 잘 참아왔다. 대견하다 할 정도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입이 되면 애들이 울고. 막.(중간생략) 부모님에 대한게 많더라구요.(중간생략). 근데. 엄마가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한거 같은 거예요 사실 트라우마 안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를 용서하고 풀리고. 근데 깨들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 친구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날 이후로 바뀐게 되게 많았어요.(중간생략)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그럴 수 있지” (참여자 1)

삶과 세상을 대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힘이 생기며 긍정적인 변화가 경험되었다.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학교폭력과 허세로 자신의 겉멋과 힘을 사용하던 참여자는 진로와 목표를 위해 무릎 꿇는 용기 있는 자세로 변화하였다.

원장님을 그렇게 찾아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도 싫고, 창피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 아무리 해도 좋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원장님을 찾아서 갔죠. 제 상황이 이런데 너무 배우고 싶다고. 청소라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하겠다고, 대신 수업만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니깐 학교 갔다 와서 1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걸로 이제 학원비로 내라 그러셨죠. (참여자 3)

여러 가지 난관의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고 무력하게 잠만 자거나 도망치던 것에서 벗어나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견디고, 부딪혀보고, 해결 방법을 찾고 대안을 선택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주도성과 책임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범주에서 보여지는 연구 참여자들이 인내의 가치를 배움, 살아나는 성찰과 자각, 새로운 애착관계, 버티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시간들은 기관과 상담자 멘토들의 공들임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인 것으로 해석되어 본 범주를

‘인고의 선물’로 명명하였다.

### 전화위복 궤도수정

꿈과 기대 없이 불안에 밀려 사회에 나왔던 연구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나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인턴활동과 전문가들의 만남들을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직의 안정된 꿈을 꾸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성취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학교안의 열등생, 루저, 인정받지 못하던 초라한 존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무너진 학업을 다시 세우기 위해 검정고시 합격을 지나 자신이 원하는 꿈과 연결된 대학학과 진학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며 무너진 상아탑을 다시 쌓아올리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대학 진학 및 학과 선택에 있어서 특징적인 경험들은 일하고 있는 직업을 심화하고 전문성 획득을 위한 실용적인 학과와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에 맞는 대학진학이 목표인 현재 입시문화와 달리 주도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실제 경험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며, 일부 참여자는 대학은 가고 싶을 때 도전해보고 싶다는 여유로움도 보였다.

내가 정말로 대학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 때 가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대학을 안 가고 싶다는 것은 아닌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중간생략) 제가 그 캐드를, 캐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2D도 있고 3D도 있고 막 여러가지 있는데 2D, 3D 다 배워가지고 3D를 하는 회사로 가면 좀 더 페이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회사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도 좀 더 그런 설계 관련된 공부를 더 해서 더 좋은 데로 나중에 옮겨 가고 공부를 계속하려고요. (참여자 9)

반복된 인생의 굴레로 제자리에 맴돌게 했던 습관, 가족내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상담과 교육, 위탁기관들을 통해 분리하고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일을 하며 약해진 몸의 회복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위한 계획을 하는 등 생활의 균형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는 반복되어온 과거 인생의 굴레와 맴도는 궤도를 이탈하여 전화위복의 결과를 가져오며 과거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본 범주를 ‘전화위복 궤도수정’으로 명명하였다.

### 영글어 가는 청춘의 열매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일궈가기 시작하였다. 비정규직, 단기알바였던 참여자들이 정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호칭이 주어지는 기쁨을 누렸다.

좀 떳떳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이제 회사원이다. 이전에는 언제 취직하지 이 마음이 강했었는데(중간생략) 제 돈으로 버는거도 좋고 알바랑 직장이란 다른 느낌이잖아요.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것도 좋고. 제 책상이 있다는 것도 좋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직급을 주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참여자 7)

전문직종의 꿈과 자신만의 비전을 세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 스스로 주

경야독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어린나이에 힘겨운 사회생활이지만 상담에서 배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힘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자라가고 있었다. 학교안에서 자기자리를 찾지 못하고 외로운 섬으로 지내던 참여자들은 학교박지원사업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후배들을 돕는 멘토로 활동하였다. 더불어 삶의 지혜도 성장하여 처세술, 사회 장면에서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학교밖에서 그들의 청춘은 영글어 가며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꿈엔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중 2 음악 가르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처음엔 하지 마라. 왜 말을 안 들을까? 애들은 teacher가 필요한 게 아니고 friend가 필요한 거구나. 꿈엔진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고민해주고.. 눈물 날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텨 줬구나. 제가 자신이 없었는데. 개천절이었는데. 애들한테 제 얘기 해주면서 친구처럼 다가가고 이러니까 감동스럽기도 하고.. (참여자 1)

이러한 범주들의 특성을 여느 청춘들과 다름없이 세상 밖에서도 성장하고 열매맺어 가는 것으로 보아 ‘영글어가는 청춘의 열매’로 명명하였다.

해석학적 핵심범주 기술: ‘다시 맞이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란 유기체를 둘러싼 내적 외적 사건들이 발달에 최대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정옥분, 2009). 이 시기는 인간의 신체, 정신, 인지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며 동시에 적절한 조건과 환경, 교육과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정옥분, 2009). 이때 환경적 장애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달 지연이나 영구적 결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결정적 시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인 학교밖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가난과 가족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거치며 학교 안 밖의 상흔으로 이어져 바뀌지 않는 인생의 굴레를 겪어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생을 보면 안정된 동지인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사랑과 수용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학창시절 또래 속에서 함께 공부하고 유능감과 꿈을 키워야 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교 밖에서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에 취약한 환경과 도움의 부재가 반복되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찬 자기(self)를 각인시키며, 인생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반복적 박탈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때 학교 밖에서의 낮은 조우들 중 참여자들에게 주요한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박지원사업의 물적 인적 조우가 일어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복되는 과거 인생의 굴레, 고단한 하루살이, 일그러진 청춘의 자화상에서 벗어나 궤도를 수정하고 전화위복 영글어 가는 청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으로 분석되었다.

학교밖을 나온 직후 연구 참여자들은 상실의 후유증으로 소진된 몸과 마음, 일상의 규칙이 없어지는 무너진 일상과 학교 밖에서도 받아주는 곳 없이 표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이전의 비행행동이 더 심해지는 등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일상생활에 빠져들어서 일정한 규칙과 규율에 따르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이때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밖 지원사업을 소개받은 참여자들의 첫 반응은 ‘무슨 도움이 될까’, ‘늦잠자서 못가겠어요’, ‘잊어 버렸어요’, 아니면 시간에 맞추지 못해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들이었다.

이러한 시간들이 흐르면서 점차 마음과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과거의 상한 마음이 쉽게 얻고, 흐트러진 생활을 조율하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단편적인 진로 선택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과정들로 채워졌다. 이는 마치 엄마의 자궁에서 품어지고 자양분과 애정을 공급받는 태내기를 다시 겪는 것과 같이 묘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궁을 통한 안정된 태내는 박탈되어진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다시 맞이하게 하였다. 지원사업이 제공하는 안정된 공간과 물적 인적 자원, 상담자, 멘토, 참여자들이 서로를 함께 버티는 삼고초려 인고의 시간들은 마치 결정적 시기에 주어지는 재양육과 각인의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공경험과 성취감, 발견되는 재능,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 얻은 인내의 가치와 살아나는 성찰과 자각 새로운 애착관계는 이들이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 과거의 궤도를 수정하고 전화위복의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 가게 하였다.

다시 맞은 결정적 시기를 통해 발견되는 것은 숨겨진 진주같이 빛나는 참여자들의 청춘의 모습 이었다. 학교밖 지원사업에서 만나는 상담자, 멘토, 또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

지와 상호작용은 오롯이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희망에 집중하고 그 이상의 변화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존재 그대로의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박탈된 결정적 시기를 학교밖의 사회적 자궁을 통해 다시 품어지며 청춘의 열매를 가는 열매들을 맺는 치유와 성장의 전 과정을 ‘다시 맞이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로 명명하였다.

### 과정분석

근거 이론에서의 과정 분석은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연속적 연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과정에서 분석된 범주들을 시간 흐름으로 살펴보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환경의 열악함과 세상의 낙인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자신의 가능성과 참모습을 모른 채 살았다. 그러나 학교밖 지원센터라는 사회적 자본과 조우 후 치유의 시간을 거치며 자신만의 재능과 참 자기를 찾아가는 성장의 시간을 거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무리와 세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오리새끼’의 모습을 상기시켜준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과정분석의 흐름을 미운오리새끼의 서럽고 힘겨운 과정과, 백조의 조우 후 미운오리새끼가 백조라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 비유하여 정리하였다.

#### 1단계 - 미운오리새끼 표류기

1단계는 참여자들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와 세상속에서 루저, 떠돌이로 환영받지 못하며 오갈데 없이 표류하며 인생의 굴

래를 겪는 모습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마치 동화 미운오리새끼에서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오리가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상처받고 쫓겨나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습으로 유추되어 본 단계를 ‘미운오리새끼 표류기’로 명명하였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생들과 조금 다른 성장과정과 삶의 굴레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부적응을 경험하고 학교밖에서는 학교졸업장도 없는 무일푼의 가난한 청춘으로 하루살이 알바를 전전하며 고단한 인생을 감내하고 있었다. 꿈과 비전은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현실을 겪어 내야 했다. 참여자들은 어디에도 속하기 힘든 불안한 정체성과 조율되지 않는 감정, 연속되어지는 실패로 인해 부정적 자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마치 미운오리 새끼가 피투된 둥지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라 받아야 했던 눈초리와 서러움으로 인해 작아지는 자신을 경험하고 세상밖으로 던져진 모습과도 같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날개를 펴야할 시기에 날아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 2단계 - 새로운 조우기

2단계는 학교밖에서 표류하던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밖 지원사업의 물적 지원과 상담자, 멘토들과의 낯선 조우가 일어나고 연구참여자들의 상처가 부동켜안아지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진정한 태내기를 맞이하는 단계이다. 이는 마치 미운오리새끼가 백조 무리를 조우하며 자신의 모습과 인생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일어나는 시기에 비유할 수 있다.

**낯선 조우.** 가난한 가정형편과 한부모 가정에서 돈벌이로 바쁜 부모님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언과 도움을 받기에도 힘든 열악한 환경으로 학교밖의 세상은 의지할 곳 없고 가진 것 없는 어린 청춘이 속하기에는 온통 낯설고 서러운 일상이었다. 이때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밖 지원사업을 소개받게 된다. 허울 좋던 위로와 달리 실질적인 지원금이 나오고 필요한 진로와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언제든 찾을 수 있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반 설레임 반으로 조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우 또한 낯선 조우였다. 늘 맺가가 따르는 세상속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 사연 있는 중퇴생으로 보던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과 달리 상담자의 무조건적이 수용과 따뜻한 시선에 대한 낯설음과 반감, 희망 없던 인생에서 다시 뭔가를 시도하는 이전의 인생과는 다른 사람들과 일들이 다가오는 낯선 조우였다.

**상처 부동켜 안기.** 낯선 조우를 통해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상처였다. 이전의 혼란스런 감정과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살아가고 있었다. 가난과 가족의 상처로 인해 안정된 성장이 박탈되고, 기본적인 생활 규칙과 관계에서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상담 시간과 프로그램 시간을 지키는 것, 공들여 시간을 건디어 내는 것, 상담자의 사랑과 관심을 수용 하는 것도 힘겨운 상태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을 온 마음으로 부동켜안는 상담자의 진심, 일관된 사랑과 훈육, 상처를 어루만지는 타당화와 과거의 실패를 알아주는 상담자와 멘토들의 연결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그들 마음속

에 있는 분노, 절망, 무기력들이 토로되고 삶의 상처를 상담자와 함께 부둥켜안고, 서로를 버티는 인내의 시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궁에서 다시 거치는 제2의 태내기.** 과거의 상처를 부둥켜안고 마음의 새살이 돋는 동안 학교밖 지원센터의 환경은 엄마의 사랑과 자양분이 적절히 제공되는 자궁에 비유할 수 있다. 인생의 단계들마다 삶의 굴레로 힘겨웠던 이들에게 간만의 안식이 제공되었다. 학교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학업에 대한 흥미저하를 눈높이에 맞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대일 멘토와 다양한 기관이 연계되었다. 이제까지 실패의 연속으로 적성과 흥미 성공경험이 부재하였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안정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제공되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처지의 또래의 기수들과의 공동체 경험도 함께 제공되었다. 안정된 자궁과도 같은 환경속에서 잃어버린 결정적 시간을 다시 거치며 마음의 새살과 삶을 건디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 3단계 - 졸탁동기(卒琢同機) 백조 탄생기

마지막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밖 지원사업과 상담자를 만나게 되고 상담자를 통해 읽혀지는 자신의 모습과 상담자의 지지와 응원, 온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이를 통해 인생의 굴레와 과거의 잘못된 궤도를 다시 수정하여 새로운 모습이 발현되는 시기로 보았다. 이는 마치 ‘졸탁동기(卒琢同機)’에 비유할 수 있다. 졸탁동기란 어미가 알을 품고 부화할 때 썸 안에서 병아리가 부리로 밖을 향해 쪼면 어미 닭이 밖에서 안을 쪼아서

껍질이 깨어져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 새끼 병아리가 세상에 빛을 보며 태어난다는 뜻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분야의 다양한 멘토들을 만나고 상담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도 그와 같은 사회인, 전문인이 되었으면 하는 삶의 애착과 열정, 희망이 살아나게 된다. 또한 학교밖 지원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쌓여가는 성취경험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를 마무리하고 대학에도 도전하는 주도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는 세상 속에서의 고된 아르바이트는 흥미와 적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며 실속학문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힘들었던 가정의 트라우마는 타인의 사정을 배려하고 일터에서 유연성으로 발휘되는 전화위복의 열매로 바뀌게 하였다. 더불어 삶의 규칙과 자기를 돌보는 기능도 회복되어 이른 나이에 저축을 시작하고 자신의 영역을 찾아가는 삶의 주체로 자기 터전을 이루어 가게 하였다. 이는 마치 백조와 조우한 후 미운오리새끼 내면으로 스며든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때마침 봄의 따뜻한 햇살이 움츠렸던 미운오리새끼의 날개를 파닥이게 하는 것과는 같았다. 미운오리새끼가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날개짓을 통해 날아오르는 진정한 백조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안데르센 동화의 마지막 이야기과도 같아 본 과정을 ‘졸탁동기 백조 탄생기’로 명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교이탈과 이후 삶의 경험 그리고 학교밖 지원사업과의 조우를 통한 치유와 성장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세계를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석학적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분석된 의미단위는 137개, 하위범주는 30개, 해석학적 범주는 9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분석 결과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발달과 성장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에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가난, 가족 속 트라우마는 혼란스런 감정으로 이어지며 학업 집중력 저하 및 흥미 저하, 돌봄과 훈육이 안 되어 학교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 권위자 및 또래관계 부적응으로 이어졌다. 주요한 부분은 이러한 참여자들이 학교 밖을 나와서도 지속되는 가난과 준비되지 않은 자원으로 인해 세상을 표류하며 고된 노동의 저임금 단시간 근로로 편입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해석학적 범주로 분석된 ‘반복되는 인생의 굴레’, ‘학교 상실의 후유증’, ‘세상속 고단한 하루살이 인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중단 현상을 생애 과정적 관점으로 보고 어린시절 경험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청소년 시기 학업 중단 및 이탈로 이어진다고(Rumberger, 2011) 주장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어린시절 기회차단과 자원부족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위기상황을 발전시키며(양명숙, 박민경, 2008; McWhiter, 2006),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 노동시장 등 사회 모든 영역에 노출된다는(Aya, 2010; Backman and Nilsson, 2011)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는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이 겪는 환경 및 경제적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학교 안과 밖에서 사회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경이 매우 열악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심리상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같이 제공되는 상담과 복지가 통합된 모델이 필요함(오혜영·박현진·공윤정·김범구, 2013)을 주장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인프라 구축과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부처마다 개별화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별로 학교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직업훈련, 주거지원, 정신보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개입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숙려 상담 대상자를 학교밖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 및 기능의 문제로 인해 이미 개입하기에는 시기가 늦었거나 그 의지가 좌절된 경우가 많다. 취약가정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숙려상담의 대상자가 되기 이전부터의 사례관리와 학교밖을 나왔을 때 그들이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가정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밖 지원센터와의 조우를 통해 인생의 굴레인 과거의 궤도를 수정하고, 새롭게 배우고 치유하며 성장하는 변화의 과정을 본 연구의 범주 분석과 과정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한 결과는 과정분석에서 미운오리새끼 같이 학교 안 밖에서 방황하며 표류하던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백조와 같은 모습을 탄생



시킴을 위해 인고의 시간과 회복,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정내에서 안정적 돌봄과 훈육이 어려웠던 취약가정 속 참여자들의 몸에 익은 무질서한 생활 습관, 도망치고 회피하는 패턴, 불안정감이 주는 자포자기 심정 등의 심리 행동적 특징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서도 지속되며 일상의 무력감, 학교 안 밖의 루저 등 정체성 불안으로 이어졌다. 또한 불안한 상황과 취약한 환경은 세상속에서 단편적 선택으로 이어지며 무작정 단기 알바에 매달리거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비행친구들과 본능적인 즐거움을 쫓는 등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위 범주 ‘학교 안 밖의 낭자한 상흔’, ‘일그러진 청춘의 자화상’, ‘무너진 일상’, ‘불안과 두려움에 쫓긴 단편적 선택’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학업중단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1~3개월까지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 무료함,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생활의 지속,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악화 등 학업중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행동이 오히려 악화된다(권혜수 외, 2007; 성윤숙, 2005; 오혜영 외, 2011)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들의 적응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배회, 은둔 등의 어려운 상황이 초래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선아, 2010)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밖지원센터의 조우를 통해 상담자, 멘토들을 만나 상처를 부둥켜안고 과거의 힘겨움을 토해내는 인고의 과정, 그리고 엄마의 자궁을 연상케하는 지원사업의 물적 인적자원들이 자양분으로 공급되는 제2의 태내기를 통해 전화위복의 치유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핵심범주 기술에서 ‘다시 맞이하는 결정적 시기’와 같이 잃어버린 어린시절의 결정적 시기, 학교밖에서의 결정적 시기를 다시 경험하고 과거의 얼룩진 습관과 상처를 청산할 심리적 힘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석학적 범주 ‘학교밖 히치하이킹’, ‘삼고초려 인고의 시간’, ‘사회적 자궁이 만들어 낸 제2의 태내기’, ‘인고의 선물’, ‘전화위복 퀘드수정’, ‘영글어 가는 청춘의 열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내 안정적인 돌봄과 애착형성이 어려운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적 안전기지 형성과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토대가 되어준 학교밖 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환경적 자원이 열악한 취약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자본의 혜택에 접근하지 못하면 학교밖에서의 상황은 악화되어 상대적으로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Rosario, Schrimshaw & Hunter, 2005) 심리적 안전기지와 같은 대상의 존재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김영희, 2014)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계속되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밖 지원센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의 시행착오를 버텨줄 수 있는 내구성과 실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체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학습방안과 개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흥미와 적성을 유발 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기 자원이 열악한 취약가정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포기된 적성과 꿈을 발현하는 다양한 장이 학교밖 사회자본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취약 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 중단 후 다시금 배우고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학교밖 지원사업의 물적 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삼고초려 인고의 시간이 지났을 때 회복되는 것은 성찰과 자각, 새로운 애착관계, 살아나는 마음의 힘 이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궤도를 수정하고 배움을 지속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가는 청춘의 설레이는 시간이 살아났다.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밖 지원사업에서 제공된 환경은 다양한 기관과 멘토들을 통해 눈높이로 제공되는 지원, 학교를 대신한 소속감과 결속감이 생성될 수 있는 기수별 모임과 또래와의 동아리 활동, 진솔한 나눔이 될 수 있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긍정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적응적이라는(Fleming, Catalano, Mazza, 2008) 선행연구결과와 그 필요성을 주장한 선행연구(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자립과 성공적 학업 복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버티어 주는 상담자 혹은 멘토등 신뢰와 인내가 수반되는 장기적인 관계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박현선, 2010; 오혜영 등, 2011; 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취약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들과 같이 오랫동안 가

난과 트라우마에 시달려 혼란한 감정과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부정적 경험들, 박탈된 학업 경험등은 장시간의 상담과 꾸준한 상담자와의 연결,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담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와 평균 근속 기간이 10개월을 넘지 않지 않으며 계약직이 80%를 넘는 불안정한 상태로 사례관리의 어려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들을 장기적으로 품어야 하는 상담자의 소진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해석학적 범주 ‘세상속 고단한 하루살이 인생’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회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문제아’, ‘양아치’로 보며 낙인과 심리적 어려움이 경험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중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오혜영 등, 2011; 윤철경, 2013; Chavez, Oetting & Swaim, 1994)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학교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사회(황순길, 2013)에서 학교밖 청소년은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이치열, 2010). 더불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정서가 아직 국민의 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가정이 취약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따뜻한 공동체와 시선이 절실하다. 선행연구에서 부

모가 취약할 경우 지역사회 거주 부모간 사회적 상호작용,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 공동체 의식은 학교밖 청소년의 적응문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희정, 2015; 진성희, 이동주, 2010). 이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낙인을 통해 위축되고 어려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홍보 및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가정에서 성장한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풍과 심리적 특성들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학교 중단이후 어떠한 특징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밖 지원센터의 조우를 통해 치유되고 배움과 성장이 회복되는 자세한 과정과 사회적 자본, 상담자, 멘토등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역할과 효과성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취약가정의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지원의 방향성 제고 및 정책적 개입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담아낸 취약가정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결핍과 좌절, 시련 속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학교밖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과 상담자, 멘토들의 열정과 수고를 응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유형과 경험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와 취약가정의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제한적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험을 담아내지 못한 것과, 다양한 지역의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지 못한 것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지역의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와 이들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밖 지원센터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파악되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개입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혁, 이근무, 이혁구 (2015). 자살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자살원인 규명을 통한 자살자 삶의 재구성. *사회복지연구*, 46(2), 257-291.
- 교육부과학기술부 (2015).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 서울: 교육통계 서비스.
- 구분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0(2), 35-57.
- 권혜수, 서정아, 정찬석 (2007). 대안학교와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의 학교밖 경험 비교: 개념도 방법론을 통하여. *상담학연구*, 8(2), 657-674.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4(1), 299-317.
- 김민 (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43.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 계층 분석(LCA)을

- 이용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선아 (2010). 학업중단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희 (2014).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숙, 이근무 (2011). 다문화 가족 시부모들에 대한 연구-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방법. 사회복지연구, 42(2), 41-70.
- 김윤희, 조영태 (2008). 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구학, 31(1), 5-30.
- 김영희, 허철수 (2012).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상담학연구, 13(2), 1013-1028.
- 김영희, 최보영. (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1), 27-58.
- 김인숙 (2011). 근거이론의 분기: Glaser와 Strauss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351-379.
- 김인숙 (2012). 근거이론 담론과 사회복지 지식형성. 비판사회정책, (34), 77-128.
- 김지수 (2013). Stop 해야 Go할 수 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지역사회, 68, 92-97.
- 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도박자 배우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2(1), 83-115.
- 박현선 (2010).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사회복지연구 41(1), 175-201.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석희정 (2014). 남성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3), 29-53.
- 성윤숙 (2005).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의 중퇴 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양명숙, 박민경 (2008). 가족건강성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409-1429.
-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아동, 청소년상담: 학업중단청소년의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한 캠프프로그램 개발연구. 상담학연구, 8(4), 1657-1675.
- 양진운 (2012). 미국 비영주권자 한인가족 초기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7, 5-40.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청소년의 학업 중도포기 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141-168.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오혜영, 박현진, 지승희 (2012).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강화 집단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45-571.
- 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 현장상담자들이 인식한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향. 청소년학연구, 20(12), 153-179.
- 윤재영, 박정현, 전경철 (2015). 해석학적 근거이론에 기반 한 성인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과정 경험 탐색. 지적장애연구, 17(2), 229-254.
- 윤철경, 김신영, 유성렬, 임지연 (2013). 학업중

- 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 이미원, 유현실 (2013). 학교중단 청소년의 ‘나의 삶 찾기’과정: 천안시 거주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1), 341-370.
- 이선희 (2015). 공교육 학업중단경험 청소년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업복귀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학교 담장 밖의 아이들, 또 다른 학교에 문을 두드리다. 청소년복지연구, 17(1), 333-356.
- 이주연, 정제영 (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이치열 (2010).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전망. 교육생각, 봄호(2010. 03. 17).
- 이희정 (2015).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예측변인과 중단적 변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4), 209-227.
- 임혜영 (2013). 미혼모 양육과입양결정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근거이론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혜영, 이혁구 (2013).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65(3), 53-78.
- 임혜영, 이혁구 (2014). 양육 결정 미혼모의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연구-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 사회복지연구, 45(3), 35-69.
- 정옥분 (2009).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소연 (2016). 탈북청소년 커밍아웃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성희, 이동주 (2010). 온라인협동학습에서 공동체의식과 토론참여도 및 학습만족도간의 관계.
- 최미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살정황에 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61-87.
- 하춘광, 석희정 (2015). 호주이민 한인 중년여성의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63-8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2014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두드림·해밀 결과보고집.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 2014년 청소년정책리포트, 3, 1-40.
- 황순길 (201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학술세미나 자료, 제주도: 제주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
- Benotiel, Q. J (1996). Grounded Theory and Nursing Knowledg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406-428.
- Charmaz, K. (2004). Premises, principles, and practices in qualitative research: Revisiting the foundation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7),

- 976-993.
- Chavez, E. L., Oetting, E. R., & Swaim, R. C. (1994). Dropout and delinquency: Mexican-American and Caucasian non-Hispanic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1), 47-55.
- Fleming, C. B., Catalano, R. F., Mazza, J. J., Brown, E. C., Haggerty, K. P. and T. W. Harachi. (2008). After-school activities, misbehavior in school, and delinquency from the end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beginning of high school: a test of social development model hypothese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77-303.
- Gary, T. & David, J. (2006). Reinventing Grounded Theory: Some Questions about Theory, round and Discovery.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6), 767-795.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Weidenfeld and Nicholson, 24*(25), 288-304.
- Glaser, B. G. (1992). *Emergence vs forcing: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CA: Sociology Press.
- Guba, E., & Lincoln, Y. (1981).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Kendall, J. (1999). Axial Coding and the Grounded Theory Controvers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1*(6), 743-757.
- Layder, D. (1993). *New strategies in social research*. Cambridge: Polity Press.
- Levitt, H., Butler, M., & Hill, T. (2006). What clients find helpful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14.
- McWhirter, J. (2006). *The Bridegroom Messiah and the People of God: Marriage in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stry, K. B., Minkovitz, C. S., Riley, A. W., Johnson, S. B., Grason, H. A., Dubay, L. C., & Guyer, B. (2012). A new framework for childhood health promotion: the role of policies and programs in building capacity and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9), 1688-1696.
- Morse, J. (1994). *Emerging from the data: the Cognitive Processes of Analysis in Qualitative Inquiry in J. Morse,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Nilsson, M., Forsberg, A., Bäckman, L., Lennerling, A., & Persson, L. O. (2011). The perceived threat of the risk for graft rejection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rgan transplant recipi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12), 274-282.
- Ortman, J. M., Velkoff, V. A., & Hogan, H. (2014). *An aging nation: the older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CA: Sage.
- Rennie, D. L. (1998).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he pressing need for a coherent logic of justification. *Theory and Psychology, 8*(1), 101-119.
- Rennie, D. L. (200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methodical hermeneutics: reconciling realism and relativism. *Theory and Psychology, 10*(4), 481-502.
- Rennie, D. L. (2006). Embodied categorizing in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ory and*

- Psychology*, 16(4), 483-503.
- Rennie, D. L., & Fergus, K. D. (2006). Embodied categorizing in the grounded theory method: methodical hermeneutics in action. *Theory & Psychology*, 16(4), 483-503.
- Rennie, D. L. (2007). Methodical hermeneutics and humanistic psychology.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5(1), 1-14.
- Rosario, M., Schrimshaw, E. W., & Hunter, J. (2005). Psychological distress following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Role of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149-161.
- Rumberger, R. W. (2011). *High School Dropout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reiber, R. S. & Stern, P. N. (2001). 근거이론 방법연구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신경림과 김미영 역, 서울: 현문사.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 Delhi, India: Sage.
- Walker, D., & Myrick, F. (2006). Grounded theory: An exploration of process and procedur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4), 547-559.
- West, D. B. (2001). *Introduction to graph theory*.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Wilson, H. S., & Hutchinson, S. A. (1991). Triangulation of qualitative methods: Heideggerian hermeneutics and grounded theor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 263-276.
- 원고접수일 : 2016. 06.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8. 13.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8. 26.

**Welcome back to the critical period:  
The hermeneutic grounded theory approach focusing  
on the out-of-school youths of vulnerable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Jin Ok Cho**

**So Youn Myu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aving school and then process of life of vulnerable families out-of-school youths through encounter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We applied Rennie's hermeneutic grounded theory methodology for this study to integrally analyze in and out school, psychiatric characteristics, and recovery processes of life. This study analysis was constructed based on 137 meaning units, 30 subordinate categories, 9 hermeneutic categories. The core category and process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we found that out-of-school youths had life cycle of undergoing repeated difficulty in the critical period which played a vital role in their development and growth at school, at home and in a world.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their healing and growing occurred through the second prenatal period in which they modified the orbit of life cycle supported by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center and counselors' effective interventions and support. And finally, vulnerable families out-of-school youths were sustained learning and grew continually to raise their living foundation in a world out of school. This research could serve as a continual, specific exploration for the life circumstances and its recovery process of out-of-school youths in vulnerable families and understand their growing process through the interventions of social capital,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Based on this study, we suggest basis data for practical and political support and prevention of school dropout to youths of vulnerable families with difficulties in and out school.

*Key words* : out-of-school youths, out-of-school youths supporting project, vulnerable families, hermeneutic grounded theory